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와서 보시오”

2018년 새해를 맞아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와서 보라”고 증언하며 사는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안드레아는 “와서 보아라”(요한 1,39)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분과 함께 머물며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흠뻑 젖은 그는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 갑니다. 복음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TV2,000에서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포짜라는 젊은 신부가 몇 년 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 11월 책으로 출간 되었고, 로마 주재 교황청 대사(2003~2006)였던 성 염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번역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머리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느님인 동시에 너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우리 아버지, 6-7쪽).

교우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여 저마다 드리는 기도가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고여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 흘러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안으로 굽어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로막힌 강물은 두터운 녹조를 이불처럼 끼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어가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무대에서 배제된 가여운 사람들은 영문 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삭풍한설이 몰아쳤던 세상에 쫓불이 밝혀지고 다시 희망을 노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를 “와서 보라”는 우리들의 증언과 초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화동 본당 김영식 요셉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원의와는 관계없이 당신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 후로 파란만장했던 제자들의 삶은 부르심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구원계획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부르심의 은총을 주님께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무엘기 상권 3장 3절-19절

안 내 : 주님께서 찾아와 사무엘을 부르시자,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묵 상 :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에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당신 뜻을 이루려고 제가 왔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답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 : 코린토 1서 6장 13절-15절.17절-20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불륜을 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묵 상 :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에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장 35절-42절

강 론 : “와서 보시오”(1-2쪽)

예물준비성가 : 342번 ‘제물드리니’

영성체성가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영성체 전에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침묵>

성체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
바로 사도는 당부합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침묵>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께서 머무르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 공소사목 성금

은척공소	100,000원	김옥순님	30,000원
풍산공소	200,000원	이명호님	50,000원
익명	50,000원	김수년님	50,000원
이상선님	50,000원	김정길님	50,000원
김기덕님	100,000원	손양복님	50,000원
이주섭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3,15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사제 서품식

- 일시 : 1월 21일(주일) 15:00
- 장소 : 목성동주교좌성당
- 사제품 대상자 :
박철현 가브리엘(휴천동 본당),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모전동 본당),
우석민 로만(하망동 본당),
송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모전동 본당)
-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목임원 및 제단체장 연수

- 일시 : 1월 27일(토) 15:00 - 28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40,000원
- 대상 : 평협 상임위원, 본당 사목임원,
교구 내 제단체 임원
- 준비물 : 미사도구, 세면도구, 필기구
- 신청 : 1월 23일(화)까지 사목국

■ 2018년 1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2월 3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월 30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2018년 교리교사학교

- 일시 : 2월 3일(토) 13:30 - 4일(주일) 15:3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안동교구 초중고 주일학교 교사(신임, 재임)
- 참가비 : 45,000원
- 준비물 : 성경, 미사준비, 세면도구, 필기구
- 신청 : 1월 26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여성연합회 총회 및 연수

- 일시 : 2월 7일(수) 10:00 - 16: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본당 여성연합회 회원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1월 30일(화)까지 사목국

■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 방법 : 1. 본당에 준비된 서명지 이용
2. 온라인을 통한 청원
- * 신부님들께서는 공문 천안교 제2017-106호를 보시고 신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된 서명지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주교회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곳감 판매

- 건시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3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2018년 파티마유치원 교사 채용 (상주 서문동 성당)

- 자격 : 유치원 정교사
-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신청 : candida1208@hanmail.net 또는 방문
- 문의 : 054-535-4851 / 010-2529-2696

■ 노인복지 한알(무료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입소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할머니)
- 입소 어르신 거주 지역 제한 없음
- 연락처 : 054-861-9256, 010-4509-2242

■ 제27회 겨울음악학교

- 일시 : 2월 2일(금) ~ 3일(토)
- 장소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 주제 : 새 미사경본에 따른 전례음악
- 문의 : 051-517-8241~2
www.bcmusic.or.kr/mec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위기와 근심과 어려움에 빛 비추기

위기의 도전

232. 가정사에는 온갖 종류의 위기가 담겨 있지만, 여기에는 가정의 극적인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극복된 위기는 강렬함이 줄어든 관계를 이끌어 내지 않고 오히려 유대라는 포도주를 더 좋게 만들고 안정시키며 숙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은 그들의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진시켜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은 점점 더 불행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새로운 단계가 열어주는 가능성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부부가 서로 더욱 가까워지거나 혼인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부는 퇴보, 필연적인 악화의 상태나 그저 무늬만 부부인 상태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혼인을 극복하여야 할 장애물들이 포함된 도전으로 여기게 되면, 모든 위기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부가 다가오는 위기를 마주하여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가정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이 많고 단련된 부부들은 다른 이들이 이를 깨닫는 데에 동행하여, 그들이 위기로 당황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위기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더욱 연마하여 그 교훈을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33.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위기라는 도전에 맞서는 것을 기피하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어 방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추고,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거나 세월에 내맡기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아무 소용없는 회피에 많은 힘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부 유대는 점점 악화되

고, 친밀함을 망치는 단절이 깊어집니다. 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대화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어느 사이엔가 내가 사랑하는 이가 [그저] 오랫동안 나와 동거한 이가 되어 버리며 단지 내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어 결국에는 낯선 이가 되고 맙니다.

234. 위기를 함께 마주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고립되고 소심하고 기만적인 침묵 속으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소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이 위기에 당면하면 소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통은 평온한 때에 배워야 하는 엄밀한 의미의 기술이며, 힘든 때에 이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소통은 부부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원인들을 발견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로운 보물을 낳는 출산과 같이 원인들에 다가가야 합니다. [시노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목적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목적 도움이 이해심과 친근감이 없으며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부의 고통과 불안의 짐을 간과하지 않는 시각으로 혼인의 위기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별장 속 아름다운 이야기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시내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면서부터 자동차로 3분, 걸어서는 15분 남짓, 나지막한 산길로 꼬불꼬불 들어가면 아담한 집 한 채가 있다. 집 뒤로 낮은 산이 병풍처럼 보호막을 치고 있으며, 탁 트인 별장 앞에는 넓은 들판과 먼 산자락 풍경에 자주 마음 설레기도 한다.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반겨주는 별장 언덕에 햇살 포근히 내리는 봄날엔 나무의자에 앉아 하늘도 보고 맑은 공기로 심호흡도 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원두막 하나가 덩그러니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 있고, 넓은 마당에 깔려있는 잔디도 이곳 별장지기이신 목사님과 착한 삼촌이 잘 가꾸어 늘 상 푸름이 깨끗하다.

따뜻한 계절엔 벌, 나비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즐겁고, 풀벌레 여치들과 엄마 등에 얹인 채 포근히 쉬고 있는 애기 방아깨비들도 자주 눈에 띄곤 하는 평화로운 산속 별장.

한 여름 밤이면 소쩍새 우는소리로 옛 추억을 달래기도하고, 새벽별이 희미해 질 무렵엔 어떻게 형언 할 수없는 아름다운 소리로 꿀잠을 깨우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어느새 마법에 걸린 나는 희미한 바깥세상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흔적을 찾으려고 눈을 비비며 창문을 열고야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을이 되면 대문간에 조경처럼 심겨진 단감나

무들이 한 쪽의 그림으로도 충분하며, 요즘처럼 눈이 내리는 찬 겨울에는 나뭇가지마다 피는 하얀 눈꽃에 감탄하여 나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눈이 내리는 날엔 별장을 꼬불꼬불 오르내리는 차들이 미끄러질까 노심초사 새벽부터 일어나 산길 눈을 치우는 분은 별장지기 목사님이다. 이러한 바깥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안의 풍경은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깃거리가 있다.

착한일꾼 천사들이 여럿, 하늘 더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발을 들며 지내고 있다. 거실 폭신한 쇼파 위에 항상 지정석으로 맡아놓은 자리에 앉아서 온갖 잔소리와 간섭을 하루 일과로 하시는 어르신, 여기가 어디냐고 1분마다 물으시는 어르신, 내가 왜 여기 있느냐며 집으로 가야된다고 아우성치는 어르신, 왜 밥을 안주냐고 배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시는 어르신,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면 90도로 굽은 허리에 바쁘게 나오시는 어르신, 노래하다가 울다가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게 욕을 퍼붓는 어르신,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별장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깃거리에서 하늘 더 가까이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의 지난 삶들을 엿볼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많은 세월 살아오시면서 온 몸에 또 깊은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스토리는 죽음 보다 무섭다는 치매로 인하여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이 분들만의 세계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영영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삶의 무게가 조금은 느껴지는 곳, 그러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이 별장 속 하루하루가 더 숙연해 지는 때도, 더 힘들고 지치는 때도, 또 기쁘고 행복 할 때도 있다. 걱정 반 염려 반으로 잘 살아야 겠다고 다짐 해 보지만, 나의 모든 삶을 주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매일 매일 다짐은 기쁘게, 기도하며, 감사로 시작하려 애쓴다.

일 년 사계절을 가까이 어르신들과 함께 살면서 앞서 가신 여러 어르신들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빌어본다. 내가 이곳 별장에서 근무한지 반 년 만에 이런 일도 있었다. 임종을 기다리는 어르신의 가족 대신 내가 임종을 보아 드린 적도 있었다. 며칠 밤을 힘겹게 지내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다. 마침 야근을 하였던 내가 임종을 보게 되었던 것인데, 새벽까지 힘들게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느라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고, 말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신 듯하였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온 몸을 닦아 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 드리면서 주님께 자비기도를 청했다.

그리고, “어르신, 밤새 힘드셨지요? 이제 주님 품으로 가시어 편안히 쉬세요,” 기도를 끝내는 순간 숨을 거두셨다. 누구보다 겁이 많았던 내가 처음으로 하늘나라 가시는 분을 배웅해 드린 것 같아 뿌듯하였지만, 떨리는 가슴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야만 하였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나고나니, 누구든지 갑자기 일이 닥치더라도 침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처해 낸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겼고, 두려움마저 사라진 것 같아 직업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하늘 더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일이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됨을 느끼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주님의 은총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사계절 별장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있었던 이야기만 해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은 치매 어르신들은 어린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더 가까이 계시는 어린아이들과 살아가는 셈이다. 그러니 기쁘고 행복한 날이 더 많은 것 같다.

숲 속 아름다운 별장 이야기의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며, 별장 속 하늘 더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도록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